

문헌을 통해 본 조선후기 꽃놀이 명소의 경관 특성

이제이* · 성종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Flower-viewing Sites through Historical Literatur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Jaei* · Sung, Jong-Sa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targets flower-viewing sites appearing in 『Kyungdojapji』 and talks about the seasonal customs and tourist attractions of the later Chosun; Pilundae, Bukdun, Outside of Dongdaemun, Cheonyunjeong and near Seodaemun etc. Through related poetry, paintings and maps, it looks into what scenic elements each attraction was made of and how the elements were felt by visitors. It sub-divided and analyzed scenic features into objective objects, subjective emotions and experienced behaviors. As a result, representative objective objects were flowers and there were also scenes where people enjoyed poem-writing meetings along with drinking-related physical elements such as liquor, liquor glasses, liquor bottles etc. Through drawing out scenes, where users gave meaning to objective objects, it tried to interpret what space meant to them, through which the meaning of flower-viewing attractions is first and foremost a space to enjoy artistic taste. Each space is used as the center of cultural creation such as literary people gathering, viewing flowers, drinking and having poetry-writing meetings. Second, as shown in scenes viewers depicted in each space, visitors were confirmed to enjoy scenes through multi-sensory appreciation. By this, flower-viewing attractions were confirmed to be not just flower-viewing but also venues of sensory experience. This study, which drew out the scenic features of traditional flower-viewing attractions, is expected to be basic material in tracing the flower-viewing enjoyed by our ancestors as a pastime and its spatial meaning and in planning Korea-unique flower-viewing attractions.

Key words: Bukdun, Cheonyunjeong, Kyungdojapji, Objective Object, Pilundae, Subjective Object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한양의 세시풍습과 명승을 기록한 『경도잡지(京都雜誌)』에 꽃놀이 명소로 등장하는 네 곳—필운대(弼雲臺), 북둔(北屯), 동대문 밖, 서대문의 천연정(天然亭)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문헌기록을 통해 각 명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관 요소들로 구성되고 방문객에게 어떻게 체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경관특성은 물경(物境), 정경(情境), 체험행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표적인 물경은 꽃이었으며, 꽃과 함께 술, 술잔, 술병 등의 음주와 관련된 물리적인 요소와 시 짓는 모임인 시회를 즐기는 장면도 등장하였다. 또한 이용 주체들이 물경에 의미를 부여한 정경의 도출을 통해 주체들이 공간에 성대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꽃놀이 명소의 의미로는 첫째, 풍류를 향유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문인들이 모여 꽃을 구경하고 술을 마시며 시회를 여는 등 각 공간들을 문화 창작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주체들이 각 장소에서 묘사한 정경에서 나타나듯, 방문객들은 공감각적인 완상을 통해 경관을 즐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꽃놀이 명소는 단지 꽃을 감상하는 것 이상의 감각적 체험의 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인 꽃놀이 명소의 경관특성을 도출한 본 연구는 우리 선조들이 여가의 한 형태로 즐긴 꽃놀이와 그 공간이 갖는 의미를 추적하고 한국적인 꽃놀이 명소를 계획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주제어: 경도잡지, 물경, 북둔, 정경, 천연정, 필운대

* **Corresponding Author** : Sung, Jong-S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South Korea, Tel.: +82-2-880-1423, E-mail: jssung@snu.ac.k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는 꽃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대표적인 서울의 꽃놀이 명소로는 여의도 윤중로와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등의 고궁 등이 꼽힌다. ‘그렇다면 200~300년 전 조선시대 한양의 사람들이 즐겨 찾던 꽃놀이 명소는 어디였을까?’에 대한 물음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음력으로 삼월 무렵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화창한 날에 무리를 지어 경치 좋은 산이나 냇가로 나가 꽃놀이를 하였다. 사람들이 모여 야외에 나가 꽃놀이를 한 것은 고대사회에서도 있었을 것이나 고려시대에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된다. 고려시대 문신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참석한 잔치인 장미연(薔薇宴)에서 지은 시의 서문¹⁾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고려시대 여름철 장미가 만개할 때, 장미연이라는 잔치와 시회를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태종실록(太宗實錄)』(2년, 1402년 2월 28일)에는 ‘임금이 교서관(校書館)에 홍도연(紅桃宴)을 열어 궁은(宮醞)을 내려주었다²⁾’고 하는 기록이 전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임금이 관각에 술과 꽃을 즐기는 잔치를 열어주는 일이 관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관각으로부터의 꽃과 술과 시를 즐기는 모임은 고려부터 이어오던 아름다운 풍류였다[1]. 이는 꽃과 술, 시를 즐기는 모임으로 상화회(賞花會) 등을 만들어 당대 사람들로 하여금 풍류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된다.

꽃놀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서들에 나타나면서 풍속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양상을 보인다. 다양한 꽃놀이 관련 행태가 담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849)』를 살펴보면, 화류(花柳)놀이는 산언덕 물굽이를 찾아 놀러 다니며 봄을 즐기는 것으로 이는 삼진날 풀밭에 나가 처음 돋은 풀을 밟는다는 풍속에서 유래한 것³⁾이다. 화전(花煎)놀이 또한 삼진날의 풍속으로, 화전은 진달래꽃을 반죽한 찹쌀가루에 붙여 둥근 떡을 만든 다음 참기름에 지진 떡을 말한다. 원래 이 떡을 지져 먹고 가무를 즐기던 부녀자들의 놀이를 일컫던 것으로 후에 교외에 나가 음식을 먹고 꽃을 보는 놀이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대와 지역, 놀이 방식 등에 따라 상화, 화류, 화전놀이 등 꽃놀이를 지칭하는 명칭들은 달라도 선조들의 꽃놀이는 자연을 거닐고 체험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따로 시간을 내어 여가로서 꽃놀이를 즐겨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발간된 문헌들을 중심

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꽃놀이를 즐긴 명소들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한다. 주로 어느 장소에서 꽃놀이가 이루어졌는지, 꽃과 함께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였는지 등 문헌에 기록된 꽃놀이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곧 꽃놀이 명소의 경관을 읽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당대 사람들이 선호하고 향유한 꽃놀이 명소 경관의 실체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가의 한 형태로 현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는 꽃놀이와 그 공간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 기회이자 각종 공연 및 퍼레이드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대의 봄꽃 축제 공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관련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꽃놀이를 포함한 전통사회의 여가를 다룬 연구와 고전 문헌을 활용하여 역사경관의 특성을 도출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조선시대 꽃놀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Lee(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꽃놀이와 관련된 시회의 구체적 양상을 계절별로 고찰한 연구로, 국화를 완상할 때 촛불을 이용해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실내에서의 꽃놀이도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1]. 조정분야에서 전통사회 꽃놀이에 관련된 연구로는 전통 행락 문화의 변화를 벗어나는 도입 및 확산과 연관 지어 통시적으로 해석한 Kim(2011)[2]의 연구가 있다.

한편, 전통사회의 여가를 다룬 연구는 시조 및 산문, 유산기 등의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석 연구가 주를 이룬다. 당시 대표적인 여가활동이었던 유람을 지리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의 사례로 Kim(2009)의 연구가 있다[3]. Lee(2011)와 Jung(2013)의 연구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즐겨 한 유람의 양상을 살펴보고 유람 중에 펼친 활동들을 밝혀냈다[4][5].

마지막으로, 문헌을 통해 역사경관의 특성을 유추 및 분석한 사례로 Son and Ham(2011)의 연구는 의경(意境) 개념을 사용하여 창덕궁 후원의 경관 특성을 해석하고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내면적 가치에 집중하였다[6]. Lee and Lee(2011)는 청풍계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인물의 행적, 시대적 상황을 통해 서촌 일대의 장소성을 규명하고, 청풍계를 묘사한 문헌과 고지도, 회화를 분석하여 청풍계의 입지와 지형, 수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청풍계의 원형경관을 분석하였다[7]. Park et al.(2014)는 팔경시, 진경산수화, 풍속지 등의 문헌을 통해 조선시대 서울 경관명소의 지리적 분포와 명소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인식 양상을 읽어냈다[8].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는 고전 문헌을 활용한 특정 문화 및 경관에 대한 연구이나, 이들 연구와 달리 ‘꽃’이라는

대상과 사람이 각 공간 안에서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경관을 읽어낸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꽃놀이 명소는 우리나라 대표 세시풍속지로 알려진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경도잡지(京都雜誌)』에 등장한 곳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문헌은 조선후기 한양에서 행해지던 세시풍속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민속지[9][10]이자 당대 지식인들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일상문화화 엮을 수 있는 저작[10]으로, 한양의 세시풍속과 그 풍속이 행해지던 장소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본 연구의 대상 문헌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경도잡지』는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1819)』 및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동국세시기』와 함께 3대 세시풍속지로 꼽히나, 이들 중 가장 먼저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인 가치가 돋보인다[9].⁴⁾

한양의 명소를 설명한 『경도잡지』의 「유상(遊賞)」 조에 다음과 같은 꽃놀이의 기록이 있다.

필운대 행화(杏花), 북둔의 복사꽃, 흥인문밖 버들(楊柳), 천연정(天然亭) 연꽃, 삼청동 탕춘대(蕩春臺)의 수석(水石)이 슬과 노래를 즐기려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도성의 둘레는 40리 인데 이를 하루 만에 두루 돌면서 성 내외의 꽃과 버들을 감상하는 것을 좋은 구경거리로 여겼다. 이른 새벽에 오르기 시작하면 해질 무렵에 다 마치게 되는데 산길이 험하여 표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12].⁵⁾

이에 따라 공간적 범위는 꽃놀이 명소로 언급되는 필운대(彌雲臺), 북둔(北屯), 흥인문(興仁門) 밖, 천연정(天然亭)이 된다. 본 연구는 한양의 여가공간으로서 꽃놀이 명소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감상 대상이 꽃이 아닌 '수석'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던 삼청동의 탕춘대는 제외하였다.⁶⁾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경도잡지』와 이에 등장하는 꽃놀이 명소에 관련된 경관, 행태 등을 서술한 문헌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연구의 대상이 기록된 다른 문헌들의 고찰을 통해 각 명소의 구체적인 경관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한 문헌은 각 명소에서의 꽃놀이가 기록된 동시대의 문헌으로 필운대 9편, 북둔 3편, 흥인문 밖 1편, 천연정 5편으로 총 18편이 해당되며 관련 지도를 함께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연구 대상으로 제시한 문헌에 제시된 꽃놀이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경관 특성 분석을 물경(物境), 정경(情境), 체험행위로 세분하여 진행하였다.

현대 문학가이자 시인인 우샤오량(吳曉)은 “물경은 감각의 경이며, 그 표현은 감각이다. 정경은 정감의 경이며, 그 표현은 정감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를 통해 물경은 물리적 형태의 아름다움 또는 실체의 인식을 의미하고, 정경은 물리적 형태에 인간의 상상력을 더한 오감의 표현이면서 감정 흥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눈을 통해 바라보는 물경의 단계에서는 대상이 중심이 되지만, 인간의 마음을 통해 느끼는 정경으로 확대되면 인간의 감정이 이입되면서 경물과 감정이 융합되어 하나의 대상이 된다[6].

다시 말해, 본고에서 정의하는 물경은 객관적인 경물이며, 공간이용주체가 물경에 감정이나 의미를 부여한 경우 정경이라 보았다.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행위는 경관을 향유하는 태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이 역시 경관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서 라고 보았다. 이들 요소는 관련 문헌에 묘사된 공간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꽃놀이 명소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II. 한양의 본 꽃놀이 명소

1. 꽃놀이 명소의 입지적 특성

근래의 꽃놀이 하면 단연 벚꽃놀이를 최고로 치지만 옛날에는 살구꽃과 복숭아꽃이 우리나라의 봄을 대표하는 꽃이었다. 이들을 감상하고 즐기 위해 모인 곳이 필운대와 북둔이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 서쪽 끝인 인왕산 산기슭 배화여고 후정에 위치한 필운대는 조선후기에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시, 노래, 그림 등에서 중요한 지소로 인식되었는데[14], 이는 필운대가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에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臺)'라는 명칭과 정선 및 장시흥(張始興)이 묘사한 필운대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주변보다 높은 전망 장소로 꽃놀이 장소로서의 입지 조건을 충족시킨 곳이다 [8](Figure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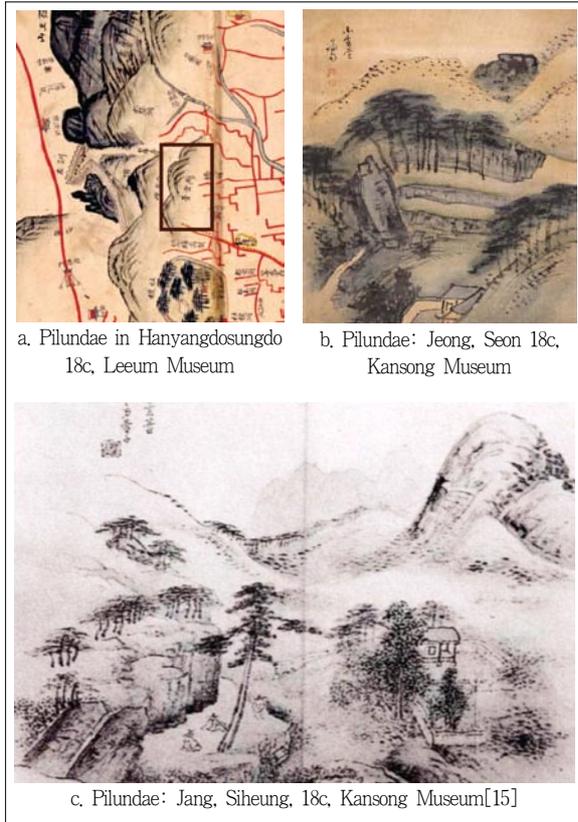


Figure 1. Pilundae

한편, 북둔은 북사동(北寺洞)으로 불리던 지금의 성북동 일대를 말한다. 조선시대 서울의 역사와 모습을 서술한 부지(府誌)인 『한경지략(漢京識略)』의 『명승조 북사동편』에 보면 혜화문 밖에 북둔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곳에 도성 밖 북쪽을 지키는 군대인 어영청(御營廳)이 있고 성북둔(城北屯)을 주둔시켰던 곳여서 북둔이라 불렀는데[16], 언덕을 뜻하는 ‘둔’의 명칭과 같이 군대를 위치시킬 만큼 산이 높고 골이 깊었던 북둔[17]도 꽃놀이 명소로서의 입지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Figure 2. Willow trees in Hanyangdosungdo[18]
18c, Leeum Museum

경도잡지의 세 번째 꽃놀이 명소로 수양버들이 유명한 흥인문 밖을 들고 있는데 이는 동시대에 그려진 『한양도성도』에서 흥인문(흥화문)과 청계천 주변에 우거진 버드나무가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2 참조). 앞선 세대이긴 하지만 숙종 때의 시인 이희(李熺)가 지은 시 『흥인문에 오르다(登興仁門樓)』에는 동대문 문루에 올라 성 안팎을 둘러보는데 버들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을 묘사한 내용이 나온다(水芹齊葉柳陰晴)[19]. 흥인문 밖의 버들 역시 흥인문에 올라가 조망하는 형태로 꽃놀이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 꽃놀이 명소인 천연정은 현재 서대문구 천연동 13번지 금화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연못 ‘서지(西池)’에 세워진 것이다. 조선시대 한양에는 남문과 서문 밖에 연못이 있었고 동문 안에도 연못이 있었다. 이 중 서문 밖 모화관(慕華館) 옆에 있던 서지는 서울의 연못 가운데 가장 크고 연꽃이 무성하여 여름철에 성안 사람들이 연꽃을 구경하기 위해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다. 이에 대해 『한경지략』의 『누정조 천연정편』과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⁷⁾ 등의 기록에서는 여름철이면 연꽃이 무성하여 이름난 곳이라 묘사된다.

『태종실록』(8년, 1408년 5월 7일)에는 천연정의 규모도 기술되어 있다. “못이 모화루까지 150보, 길이는 380척(尺), 넓이는 3백척, 깊이는 두세 길(丈)(池距樓一百五十餘步, 長三百八十尺, 廣三百尺, 深二三丈.)”이라 하여 한 길이 성인 어른의 키높이와 같으니 그 규모가 실로 컸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열흘 후인 5월 19일에는 “모화루의 남쪽 연못이 완성되니 개성 승교사의 연못에서 연을 옮겨다 심도록 하였다(慕華樓南池成, 賜赴役隊長隊副四百米各一石, 船載舊京崇教寺池蓮種之.)”고 하여 이때부터 천연정에 연꽃이 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천연정의 연꽃은 19세기에 그려진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의 제7, 8쪽에 나타나 있다. 이와 더불어 천연정과 서지의 연꽃 사진을 통해 당대 지식인들이 연꽃을 구경하기 위해 올라 앉은 천연정과 서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3 참조).

문헌기록의 종합을 통해 이들의 추정 위치를 『한양도성도』에 표시한 결과 꽃놀이 명소들은 도성 안팎으로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4). 필운대를 제외한 세 곳 모두 도성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들이 속한 행정구역을 보면 성 내외의 구별 없이 중요한 구역으로 다루어져 온 곳임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행정구분은 세종 때의 5부(部) 49방(坊)을 계속 사용해온 것인데, 기본적으로 도성 내 성중오부(城中五部)가 핵심관할구역이었다. 하지만 49방 가운데서도 돈의문 밖의 서부 반송방(盤松坊), 소의문 밖 반석방(盤石坊), 광희문 밖의 동부 송신방(崇信坊) 및 인창방(仁昌坊) 등은 성 밖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함시켜 경중오부(京中五部) 및 성중오부라 하였다[22]. 따라서, 북둔이 속한 송신방, 흥인문 밖이 속한 인창방, 천연정이 세워진 반송방 등 세 곳은 비록 성 밖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 지역들은 한성부만큼이나 중요하고 이룬 곳이었음에 틀림없다.

2. 꽃놀이 명소의 경관 구성

1) 물경과 정경

꽃놀이가 기록된 18편의 문헌들에는 작자 자신이 본 것인 물경과 그에 대한 감상인 정경이 함께 제시된다(Table 1 참조).

물경은 세부적으로 장소로서의 물경과 소품으로서의 물경으로 나눌 수 있다. 장소로서의 물경은 작자가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소품으로서의 물경은 그 장소의 특성 및 인물들의 행위를 부가적으로 설명해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경관이 파악될 수 있도록 돕는 요소이다. 18편의 문헌에서 두드러지는 장소로서의 물경은 단연 꽃이며, 궁궐 담, 오솔길, 초가집, 바위, 정자 등은 작자가 위치한 각 장소를 설명하거나 혹은 조망되는 대상을 나타내준다. 술과 술잔, 촛불 등은 소품으로서의 물경으로 이를 통해 꽃놀이에 수반되는 행위 및 보조 경관의 파악이 가능하다.

작자가 바라 본 경물에 꽃놀이를 하면서 느낀 감정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정경의 도출은 각 꽃놀이 명소가 당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꽃놀이에 동반된 행위

꽃놀이에 동반된 행위는 경관을 향유하는 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는 하나의 경관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각 명소에서 행위를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필운대가 선비와 가객들이 꽃을 구경하고 시를 짓기에 모여든 최고의 명당이었음을 관련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필운대에서의 꽃놀이와 관련하여 작품을 남긴 사람은 홍세태(洪世泰, 1653~1725), 남유용(南有容, 1698~1773), 신광수(申光洙, 1712~1775), 채제공(蔡濟恭, 1720~1799), 황윤석(黃胤錫, 1729~1791),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14], 이를 통해 조선후기에 꽃놀이는 서울 도성 봄철의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살구꽃 활짝 피어 다시금 비껴진 날에
육각봉 입구에서 또 한 차례 잔을 잡네.
날씨 맑아 아지랑이 산등성이에 아른대고
훈풍 불어 버들꽃은 궁궐 담에 자욱하다.
새해 들어 시 짓는 일 필운대에서 시작하니
이곳의 화려함 서울에서 으뜸일세.
이스라엘 봄의 서울 인산인해 속에서는
흰머리가 희끗해도 반악을 흥내내네 [23].

杏花開花一番忙
六角峰頭又把觴
時日遊絲搖蕨麓
曉風飛絮暗宮牆
新年翰墨先韋曲
此地繁華冠洛陽
杳杳春城人海裏
二毛蕭颯問潘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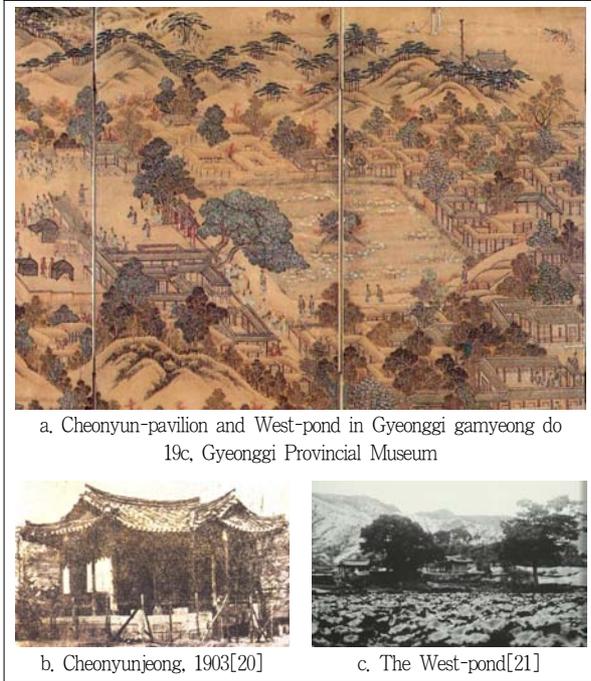


Figure 3. Cheonyunjeong and West-p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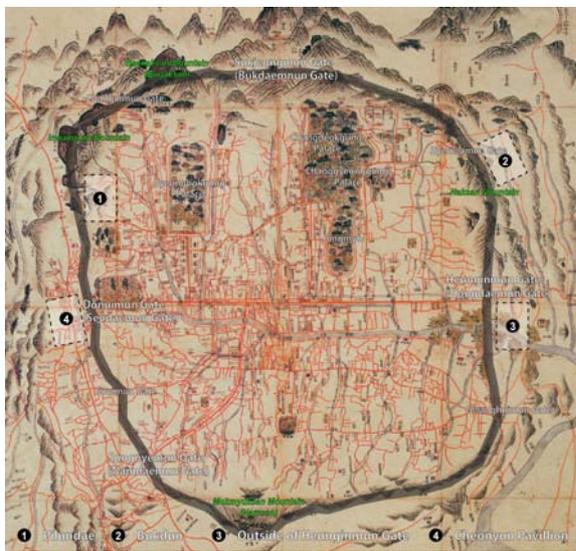


Figure 4. Estimated location of flower-viewing sites

또한, 네 곳의 꽃놀이 명소는 모두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던 도성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도성 안팎의 사람들이 이곳들을 찾아와 꽃놀이를 즐기는 명소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Table 1. The landscape elements of four flower-viewing sites showed in Kyungdojapi

Site	Writer	Object(物境)	Subjective Emotion(情境)	Activity
Pilundae (弼雲臺)	Yu, Dek-kong (柳得恭, 1748~1807)	Apricot blossoms, Wine glass, Haze, Willow, Wall of palace, A big crowd	It is the best thriving place in a capital(長安)	Drinking, Writing a poem
	Yu, Bon-ye (柳本藝, 1777~1842)	Flowering trees, Middle-class folk, Liquor, People gathered to have a poetry club	Pilundae Pungwol(弼雲臺風月.)	Flower-viewing, Holding a poetry club
	Yu, Bon-hak (柳本學, ?~?)	Hoses(人家), Peach blossoms(桃), Apricot blossom(杏), A path(一路幽靜), Green grass(芳草)	A warm breeze was blowing gently, it was very pleasant. (和風悠然而來, 甚樂也.)	Sightseeing(共登, 觀), Viewing(看花), Drinking(飲), Celebrating spring(春遊)
	Park, Ji-won (朴趾源, 1737~1805)	Crowd under blossoms(花下千萬人)	It is bright above and silent below. (上明下幽靜.)	Flower-viewing
	Park, Mun-su (朴文秀, 1691~1756)	Millions of(萬樹) White-plum flowers(李白) and Red-peach blossoms(桃紅)	A great scenery and such a pleasure, I hope to be drenched in a glass of peaceful wine always. (如此風光如此樂, 年長醉太平杯.)	Singing(歌), Whistling(嘯), Flower-viewing(如此樂) Drinking(長醉)
	Lee, Deock-mu (李德懋, 1741~1793)	Thatched house(茅家), Spring water(泉偏潔淨), Tree(暄樹)	A tree meets spring, becomes alive naturally. (暄樹任欹斜.)	Flower-viewing(看花) Naming(號加)
	Kim, Su-jang (金壽長, 1690~1770)	Flower tree, Willow, Liquor, Yukgak(六角) hill	Will meet spring sitting around a hill, Yukgakbong(六角峴).	Celebrating spring
	Shin, Kwang-su (申光洙, 1712~1775)	Flower(花), Numerous houses(萬戶), Mist(霧)	The refreshing flowers in my eyes, seems like a numerous houses. (滿眼芳華萬戶同.)	Flower-viewing(花事)
	Chae, Jae-kong (蔡濟恭, 1720~1799)	Flower(花), Boulder(臺前石), Crowd(倚儂)	A vitality of flower twins a man, I have no enough time to look around sceneries here and there. (花氣馥馥蒸人, 殆欲應接不暇.)	Flower-viewing(賞花)
Bukdun (北屯)	Park, Je-ga (朴齊家, 1750~1805)	Peach blossoms(桃花)	You know the shame of not planting a peach blossom tree. (不種桃花以爲羞.)	-
	Kim, Jeong-hee (金正喜, 1786~1856)	Full blossoms on bushes(花發萬林齊), Thatched house(村茅), Moss(苔), Stream(叉澗)	It seems like to realize the teaching of Buddha, it is beautiful and clear like a world of gods. (佛乘如將悟, 仙源了不迷.)	Flower-viewing(看桃花)
	Lee, Deock-mu (李德懋, 1741~1793)	Peach blossom(桃花)	The reddest in the world. (北屯桃花天下紅.)	Flower-viewing
Heunginmun (興仁門)	Yu, Bon-hak (柳本學, ?~?)	Strong current(水勢奔), Iron gate(鐵閘), Branch of a willow tree(絮), Weeping willow(垂楊), Five-arched Floodgates(五間水)	The best place to enjoy spring is the Ogansumun where is a full of weeping willow. (京城第一遊春處, 無數垂楊五間水.)	Celebrating spring(遊春)
Cheonyun-jeong (天然亭)	Yu, Bon-ye (柳本藝, 1777~1842)	The west pond, Lotus flower	It is the best place to view lotuses for people live in a castle in summer because it(the pond) is full of lotuses.	Lotus blossom viewing
	Hwang, Rok-bi (黃綠比, ?~?)	Cheonyunjeong, Lotus flower, Big leaves, Moon, A lamp	A big leaf grown in its life / stands sparsely / an endless clear scent / bound in stems	Lotus blossom viewing, Drinking
	Jeong, Yak-yong (丁若鏞, 1762~1836)	Pavillion in grove(林亭), Willow trees(柳), Sunset(夕陽), Buds and leaves of lotus(菡萏), Pond(池塘), Liquor bottle(壺)	The splendor of the setting sun is indwelt in buds and leaves of lotus, the pond is full of the autumnal tints. (夕陽棲菡萏, 秋色滿池塘.)	Lotus blossom viewing(且復挹清香), Drinking(壺乾勿遽起)
	Lee, Yoon-young (李胤英, 1714~1759)	Sandhill(沙岸), Millions of lotus flowers(荷花萬餘柄), Moonlight(月), Dew(露), Glass bottle(璃鍾), Candlelight(燭), Lotus leaves(蓮葉)	Millions of lotus flowers are shining reflecting moonlight, dew is sweet-scented tangled up like a bright gem. (荷花萬餘柄, 得月發彩, 而露法珠凝, 玲瓏芬郁.)	Drawing(作清暑圖/爲畫供借), Flower-viewing(西池賞荷, 看朝荷), Drinking(飲一觴/碧筒飲), Writing poems(次韻/賦抵蓮詩/拈韻賦詩)
		Lotus flower(芙蓉), Misty pond(煙塘), Glass(盃/琉璃), Candlelight(燭), Lotus leaves(蓮葉)	A visiter left a pavilion in a forest and a scent of lotus pervades on a way, the evening sun shines in the highest peak of the west pond. (林亭客罷香吹路, 斜映西池第一叢.)	Drinking(酒/碧筒飲), Writing poems(賦二詩)

유득공의 시문에는 필운대 주위에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봄 풍경을 즐기면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기 위해 필운대를 찾아 온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새해 들어 시 짓는 일을 필운대에서 시작할 정도로 필운대는 서울의 유명한 유람 장소였다. 이에 대해 유득공의 아들이자 유본학(柳本學, ?~?)의 한 세대 선배인 채제공은 1784년 봄에 사직단, 필운대 등을 거닐며 꽃놀이를 한 뒤 이에 대한 감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제묘년(1783) 3월 10일, 목유선과 필운대에서 꽃구경하기로 약속하였다. 저녁밥을 다 먹고 나서 가마를 타고 갔더니 목유선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필운대 앞 바위에 자리를 깔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얼마 있다가 목유선이 이정운과 심규를 이끌고, 종자에게 술병을 들게 하여 사직단 뒤쪽으로 술숴를 뚫고 왔다. (증략) 그때 휘황한 저녁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꽃기운은 사람을 확 휘감으니 이 풍경 저 풍경 다 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귀한 집 자제들이 동무들과 짝을 지어 계속 물러와서 마치 저지거리인 양 사람들로 베풀었다. (후략)
『조원기(曹園記), 『변암집(樊巖集)』(23)

변암은 1783년 봄에 목만중(陸萬中, 1727~?), 이정운(李鼎運, 1743~?), 심규(沈澆) 등과 함께 필운대 꽃구경을 나섰다.

때는 저녁이라 휘황한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꽃기운은 사람을 휘감아 주위 풍경을 황홀하면서도 안온하였다. 이러한 경관을 보기 위해 사방팔방에서 짝을 지어 물러와 살구나무 아래에서 연신 탄성을 질렀을 것이다. 이로써 필운대 주위는 자연스레 저자거리처럼 봄벼 꽃놀이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 되었던 것이다[23].

박지원도 필운대 저녁의 꽃구경을 「필운대의 살구꽃을 구경하다(弼雲臺看杏花)」에서 다음과 같이 포착하였다.

지는 해 어스레 녀을 거두니	斜陽熒斂魂
위는 밝고 아래쪽은 고즈넉하다	上明下幽靜
꽃 아래 노니는 수많은 사람	花下千萬人
옷과 수염 제각끔 같지가 않네.	衣鬚各自境

『필운대의 살구꽃을 보고(弼雲臺看杏花)』(24)

완당(阮堂) 김정희는 북둔에서의 복숭아꽃을 보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성 동쪽 아주 가까운 곳에	城東尺五地
복숭아꽃 온 숲 가득 일제히 피었네	花發滿林齊
불승도 당장 깨우칠 것 같고	佛乘如將悟
선원도 뚜렷하여 희미하지 않네	仙源不迷

『북둔간도화(北屯看桃花), 『완당집(阮堂集)』(17)

성안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는 북둔의 복숭아꽃이 만개하니 그 정경이 너무도 성스러워 보여 부처가 되는 길(成佛)도 당장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원(仙源)처럼 뚜렷하여 그곳을 찾느라고 길을 잃을 염려도 없겠다고 하고 있다[17].

북둔의 복숭아꽃 온 천하에 붉은데	北屯桃花天下紅
푸른 냇가 집집마다 낮은 울타리	短籬家家碧溪注
전고하고 비옥한 우리 땅 참으로 아름답고	全城天府儘美哉
래평성대 또한 즐겁구나	壽域春臺亦樂只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 『아정유고(雅亭遺稿)』(16)

이덕무(李德懋)가 남긴 시문에는 “북둔의 복사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북둔의 복사꽃은 필운대의 살구꽃만큼이나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움을 느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홍인문 밖 버들을 보기 위한 꽃놀이가 기록된 시문으로는 조선 영조 때 문인 유본학의 「오수문유제(五水門柳堤)」가 전한다.

세차게 흐르는 물살에 철문 뱅뱅 울리고	鐵閘喧轟水勢奔
동풍에 버들가지 솟털처럼 훨훨 날리네	東風飛絮每紛紛
도성 안 제일의 봄놀이 장소는	京城第一遊春處
수양버들 우거진 오간수문이라네	無數垂楊五間水

『오수문유제(五水門柳堤), 『문암집(問菴集)』(25)

연꽃 구경의 명소로 알려진 천연정에서는 고종조(高宗朝) (1860~1907)의 시인인 황록비(黃綠比)가 천연정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며 읊은 시가 있다.

천연정 올라서 무더위 피하는데
 밤늦도록 연꽃 구경하다 정자 위에서 잔다네.
 세월 따라 지란 큰 잎은 넓기도 하고,
 흰없이 맑은 향기는 즐기마다 영기었네.
 창해의 삼경(三更) 달이 못 속에 비치는데,
 종소리 들려오자 만호장안(萬戶長安)에 등불 켜지누나.
 호상(湖上)에서 놀던 범충(范蟲), 서시(西施)
 지금은 어데 갔나,
 먼 산에 새벽닭 우니 마시던 술이 어름같이 차구나 [26]

특히, 천연정에서는 연이 만발하는 무렵이면 시인 묵객들의 시회 모임이나 일반 서민들의 관상놀이가 이루어졌는데, 다산 정약용이 주도한 시인들의 친목단체인 죽란시사(竹欄詩社)의 규약에서 정하는 정기 모임 시기 가운데 ‘가을이 되어 서늘해지면 서지에 연꽃을 감상하러 서지에 모인다.’라는 것이 있다[26]. 또한, 『동국여지비고』에 수록된 「국도팔영(國都八

詠)』⁸⁾에 필운대의 꽃과 버들을 의미하는 ‘필운화류(彌雲花柳)’와 함께 ‘서지에서 연꽃구경(盤池賞蓮)’이 꼽혔을 정도로 천연정은 연꽃을 완상하기에 좋은 명승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리 다섯 사람은 느릿느릿 걸어 동구를 나서서 서지에 함께 이르렀다. 모래언덕이 눈처럼 하얀데 나무 그림자가 하늘거렸다. 연꽃 민여 송이가 달빛을 받아 광채를 발하는데 이슬은 옥구슬처럼 영롱하고 향긋하였다. (후략)
『서지에서 꽃구경(西池賞花記)』[27]

『서지에서 꽃구경(西池賞花記)』에는 이윤영(李胤英, 1714~1759)과 이인상(李麟祥, 1710~1760) 등이 이곳에서 즐긴 풍류가 묘사되어 있다[27]. 이윤영 일행은 이 시에서 연꽃과 달빛, 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경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그림으로 남겨진 해당 명소의 꽃놀이 기록으로는 정선의 『필운상화(彌雲賞花)』가 있다(Figure 5 참조). 『필운상화』는 꽃들이 만개한 봄날 선비들이 필운대에 올라 꽃놀이 풍류를 즐기는 모임인 상화회의 모습을 담은 그림[10]으로 당시 필운대에서의 문인들의 꽃놀이 양상을 보여준다. 정선이 친구 사천 이병연(李秉淵)과 십탄 이우신(李雨臣) 등과 함께 꽃놀이를 즐기면서 즉석에서 그린 것이다[28].

조선후기의 이러한 꽃놀이 경향은 전통적으로 선비가 꽃을 좋아하는 것을 ‘완물상지(玩物喪志)’라 비판받은 것에 대해 꽃을 완상하면서 마음을 닦고 꽃에 깃든 이치를 깨닫고자 한 이른바 ‘관물찰리(觀物察理)’라고 주장한 강희안(姜希顔, 1417-1464)[29]의 사상을 이어가는 현상이라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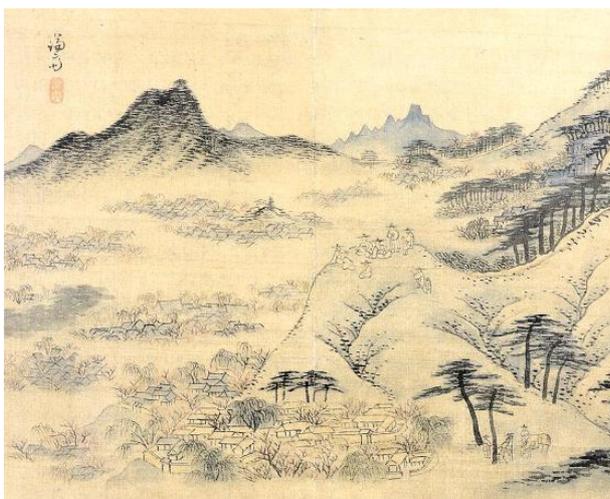


Figure 5. Pilunsanghwa: Jeong, Sun. 1751, Private Collection

IV. 꽃놀이 명소의 공간적 의미

문헌을 통해 각 명소들의 경관 요소를 도출한 결과, 대표적인 물경은 꽃, 술, 술병, 사람들 등이었다. 여기서의 사람은 꽃구경을 하거나, 시회에 참여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회와 시사의 모임으로 이어지는 꽃놀이는 조선 후기 풍류를 즐기하고자 한 당대 사람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꽃놀이를 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하였지만, 꽃놀이를 포함한 자연 감상과 시, 노래, 음악 활동 등이 함께 전개된 것이다.

실제로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 지배계급과 양반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작(詩作)과 풍류활동은 조선 후기 중인계층과 여향(閭巷) 시인·목객들이 참여함으로써 모임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분위기의 시작(詩作)이 융성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본고에서 다룬 꽃놀이 명소들의 자연경관은 매우 뛰어나 명문세가들이 즐겨 찾는 여가공간이었으나, 이후 중인계층과 여향문인들도 찾게 되면서, 문화와 풍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명소들에서 도출된 정경은 당대 사람들이 단순히 시각적 경관만을 읊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각적 경관 뿐 아니라 공감각적으로 묘사되는 정경은 이들이 각 공간에서 꽃을 포함한 경관을 감각적으로 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꽃이 주는 향기 뿐 아니라, 꽃이 주는 기운과 빛, 바람, 풍광을 누리며 꽃을 감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자연 경관에 빚대어 감정과 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꽃놀이 명소가 방문객에게 감각적 체험을 유도하는 공간으로서 이 체험을 통한 감정을 시나 그림 등으로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조선후기 한양 내 꽃놀이 명소의 입지 및 경관 특성을 도출하여 그 공간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꽃놀이 명소 연구는 구체적인 경관 요소와 이용 주체가 부여한 정경을 읽어냄으로써 이용 주체와 공간의 생성적 관계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도잡지에서 소개된 대표 꽃놀이 명소 네 곳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관 요소들로 구성되고 방문객에게 어떻게 체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드러난 물경은 꽃이었으며, 꽃과 함께 술, 술잔, 술병 등의 음주와 관련된 물리적인 요소와 시 짓는 모임인 시회를 즐기는 장면도 등장하였다. 또한 이용 주체들이 물경에 의미를 부여한

정경의 도출을 통해 주체들이 공간에 대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꽃놀이 명소의 의미로는 첫째, 풍류를 향유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문인들이 모여 꽃을 구경하고 술을 마시며 시회를 여는 등 각 공간들을 문화 창작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주체들이 각 장소에서 묘사한 정경에서 나타나듯, 방문객들은 공감각적인 완상을 통해 경관을 즐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꽃놀이 명소는 단지 꽃을 감상하는 것 이상의 감각적 체험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정된 시기와 공간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객관화하기 힘든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꽃놀이로 유명했던 장소가 갖는 이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통하여 물경과 정경을 도출하고 꽃놀이 공간의 의미를 읽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여가의 한 형태로 즐긴 꽃놀이와 그 공간이 갖는 의미를 추적하고 한국적인 꽃놀이 명소를 계획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 주 1) “사관의 뜰 가운데 장미가 한 그루 있는데 즐기와 등치가 무성하여 마치 일산을 펼쳐놓은 듯하다. 꽃이 피어 흐드러지면 관각의 한림들이 반드시 모여 술을 마시고 감상을 하는 것을 대개 상례로 삼았는데 이를 장미연이라 하였다(史館庭中有薔薇一株，枝幹扶疏若張蓋焉，花開方盛，館翰諸公必會飲而賞，率以爲常，名之曰薔薇宴，今年是會，內相河間公作長句一篇，送黃封酒以侑其歡，蓋公嘗爲史館，而箇中興不復淺故也，嗚呼美哉，承休依韻課成一首，奉呈)。” [1], 『유내상의 장미연(薔薇宴) 시에 차운하다(次韻內相薔薇宴詩并序)』, 『動安居士集』 권2
- 주 2) “유기(柳沂)를 보내 궁은(宮醞)을 교서관(校書館)의 홍도연(紅桃宴)에 내려 주었다. 예문(藝文)·성군(成均)·교서(校書) 3관(三館)이 각각 상반은 물건으로서 그 연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문관에서는 ‘장미연(薔薇宴)’이라 하고, 성군관에서는 ‘벽송연(碧松宴)’이라 하고 교서관에서는 ‘홍도연(紅桃宴)’이라고 하여, 3년에 한 차례씩 돌려가며 마련하여 회음(會飲)하였다. 임금이 유아(儒雅)를 중히 여긴 까닭에, 궁은(宮醞)을 내려주어 사치하게 하였다[1](遣代言柳沂，賜宮醞于校書館紅桃宴，藝文、成均、校書三館，各以所賞之物名其宴，藝文曰薔薇，成均曰碧松，校書曰紅桃，三年一次輪辦會飲，上重儒雅，故賜宮醞以侈之。)” 『太宗實錄』
- 주 3) 都俗出遊於山阿水曲之花柳即上已踏青之遺俗也 『東國歲時記』 『三月』
- 주 4) 유득공이 『경도잡지』를 언제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관련 학계에서는 1792년부터 1807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본다[9]. 서울대 규장각과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된 두 필사본의 본문 가운데 “1792년에 만들어진 ‘장용영(壯勇營)’이 인용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부터 유득공의 졸년인 1807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11].
- 주 5) 彌雲臺杏花北屯桃花興仁門外楊柳天然亭荷花三清洞蕩春臺水石觴詠者多集于此都城周四十里一日遍巡周覽城內外花柳者爲勝凌晨始登昏鍾可畢山路絕險有委頓而返者 『京都雜志』 『遊賞』
- 주 6) 필운대, 복둔, 흥인문 밖, 천연정은 앞서 언급된 『열양세시기』와 『동국세시기』에서도 꽃놀이 명소로서 등장하는데 반해, 삼청동 당춘대는 『동국세시기』에서 정릉과 함께 수석이 유명하여 술과 문학을 즐기는 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전한다. 이극익(李尙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練藝室記述)』을 포함하여 삼청동을 소재로 한 시문들에는 꽃이 아닌 물과 바위, 녹음이 감상 대상으로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13].

- 주 7) 在西池邊，本李海重書齋，今爲京圻中營，最宜於夏月賞蓮，詳西池。『東國輿地備攷 卷2』 『樓亭』
- 주 8) 정조는 한양가를 통해 도성 내의 승경을 여덟 주제로 나누어 특징을 묘사하였다. 필운화류(彌雲花柳), 압구범주(鴨鷗泛舟), 삼청녹음(三清綠陰), 자각관등(紫閣觀燈), 청계관풍(淸溪觀楓), 반지상련(盤池賞蓮), 세검빙폭(洗劍水瀑), 통교제월(通橋霽月) 등이 이에 속하며 이 중 반지상련이 서지에서의 연꽃구경을 칭한다. 서지는 천연정 옆에 자리한 반송정(盤松亭)의 이름을 따 ‘반지’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REFERENCES

- [1] Lee, J. M.(2012). The Joseon Seonbi's Flower-Viewing and the Quint Poetry Clubs. Sino-Korean Poetry Research, 20: 299-335.
- [2] Kim, H. K.(2011). A Study on Interpreting People's Enjoyment under Cherry Blossom in Modern Tim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4): 124-136.
- [3] Kim, S. H.(2009). A Study on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Traveling to Mt. Samgak in the Chosun Dynasty as Viewed through Travel Accoun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 21(2): 132-150.
- [4] Lee, S. K.(2011). A Study on Travel Aspect of Sadaebu in Joseon Dynasty. Korean Studies Quarterly, 34(4): 37-62.
- [5] Jung, C. Y.(2013). Activities of Literati's Travels in th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42: 37-70.
- [6] Son, Y. H. and Ham, K. M.(2011). A Study on Yijing and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nalysis of Poems in Changdeokgung's Rear Garde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3): 124-133.
- [7] Lee, J. H. and Lee, J. K.(2011). A Study on Landscape of Cheongpunggy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1): 50-58.
- [8] Park, S. J., Kim, H. B., and Lee, S. H.(2014).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scape Attractions of Seoul in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Eight Scenery Poems,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and Folklore Literature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7-35.
- [9] Na, K. S.(2007). The Writing and Its Significant of Folk Poetry(風俗志) in Yeongjae Yu Deuk-gong(冷齋 柳得恭).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DaeDong-Hanmun 27: 131-156.
- [10] Cho, S. S.(2012).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description of books of Seasonal Customs in Joseon Dynasty from the latter-half of the 18th century to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hina-. The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 60: 183-221.
- [11] Jung, S. M.(2007). Research Achievements on translation to Korean on books of Seasonal Customs in Joseon Dynasty In National Folk Museum(eds.). Almanac of seasonal customs of Joseon. Seoul: National Folk Museum, 17-37.
- [12] National Folk Museum(2007). Almanac of seasonal customs of Joseon III. Seoul: National Folk Museum.
- [13] Nam, E. K.(2012). The Image of Samcheong-Dong in Korean Literary Material. The Study of the Eastern Classic, 49: 262-295.
- [14] Choi, J. N.(2014). A Romantic pursuits of Park-Hyokwan in the area of Pilundae and the part role of Lee-Yoowon. Journal of Korean Classical Poetry Association, 36: 175-205.
- [15] Maeng, I. J.(1963). Pilundaedo(彌雲臺圖) of Jang, Si-Heung(方壺子

- 張始興).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34: 391-393.
- [16] Park, H. W.(Trans.)(2015). Seoul in the Eighteenth Century from a poem for "Seongsijeondo." Seoul: Bogosa.
- [17] Lee, S. H.(1998a). Korean culture through flowers 1 (Revised) (Korean edition). Seoul: Nexusbook.
- [18] <http://www.floma.pe.kr/xe/FreeBoard/417349>
- [19] <http://news.chosun.com/2015.07.18>. 'Current affairs & Column by Ahn, Dae-Hoe'. 시사 칼럼, 안대회. [가슴으로 읽는 한시] 흥인문에 오르다
- [20]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0>
- [21]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2010). Pavilions in Seoul. Seoul: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 [22] Kim, S. J.(2005). Study on Gyunggi gamyeongdo, I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eds.). Gyeonggi-do in old paintings. Suwo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23-274.
- [23] Na, J. M.(2010). Ascend the mountain following Scholars (Sunbi). Paju: Idambooks.
- [24] Jung, M.(Trans.)(2014). 300 Chinese Poetry. Paju: Gimgyoungsa.
- [25] Seoul Museum of History(2015). Cheonggyecheon and Willow trees: 2014~2015 of Special Exhibition in Cheonggyecheon Museum. Seoul Museum of History.
- [26] Lee, S. H.(1998b). Korean culture through flowers 3 (Revised) (Korean edition). Seoul: Nexusbook.
- [27] Lee, J. M.(2015). Flower laugh at people and be mixed up with heart. -four seasons flower viewing of scholars in Joseon Dynasty-.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ds.). Understanding Joseon Dynasty through recreation. Paju: Geul-Hangari. 17-46.
- [2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5/05/009000000200505181623041.html>
- [29] Lee, J. M.(2013). The way to raise flowers of scholars.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ds.). Joseon Dynasty in Practical Books. Paju: Geul-Hangari. 53-84.

원 고 접 수 일: 2016년 3월 24일
 심 사 일: 2016년 5월 23일 (1차)
 : 2016년 6월 07일 (2차)
 계 재 확 정 일: 2016년 6월 08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